

아동기 반추에 대한 탐색: 부부갈등, 양육방식, 사회불안을 중심으로*

김 수 정¹⁾

가톨릭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정 윤 경²⁾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 후기 반추적 사고에 대한 예언 변인들을 알아보고 예언 변인들 간 연계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대상자는 초등학교 4학년 아동 267명이다. 부모갈등 지각, 양육지각, 사회불안 그리고 반추가 설문지를 통해 아동 보고로 측정되었다. 상관분석 결과, 부모갈등 지각은 거부·제재 양육지각, 사회불안 그리고 반추와 높은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거부·제재 양육지각은 사회불안 및 반추와 높게 정적으로 상관되었으며, 사회불안은 반추와 높게 상관되었다. 각 변인들이 반추에 주는 직·간접적 연계성을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으로 검증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갈등지각은 거부·제재 양육지각과 사회불안에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반추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다. 거부·제재 양육지각과 사회불안은 반추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갈등지각은 거부·제재적 양육지각과 사회불안에 영향을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반추 발달에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연구 결과를 통해 부정적인 양육지각과 사회불안이 반추 발달에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변인으로 제안해 볼 수 있으며, 부모 갈등지각은 거부·제재적 양육과 사회불안을 통해 반추에 간접적으로 관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반추적 사고, 부모갈등, 거부·제재적 양육, 사회불안, 아동후기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2023937).

1) 가톨릭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학술연구교수

2) 교신저자 :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E-mail : benijeong@catholic.ac.kr)

I. 서론

최근 들어 부정적 정서나 고통에 대해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자기 초점적 사고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되고 있다(Johnson, Carr, & Whisman, 2015; Hilt, Armstrong, & Essex, 2012; Mor & Winquist, 2002; Nolen-Hoeksema, Wisco, & Lyubomirsky, 2008). 자기 초점적 사고 과정 중의 하나인 반추는 비난받은 사건들에 대한 부정적 측면에 지나치게 초점을 두고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반응이다. 즉 고통스런 증세에 대한 원인 및 결과에 초점을 두고 소극적으로 곱씹어 반복적으로 사고하는 반응으로 정의된다(Nolen-Hoeksema, et al., 2008).

이와 같이 반추는 개인의 부정적인 정보나 증세에 대한 반복적인 사고로서 광범위하게 정의되는데, 역사적으로 우울과 연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반추가 우울뿐 아니라 기분, 불안, 그리고 여러 심리적 장애 등과 관련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Hartley, Haddock, Vasconcelose Sa, Emsley, Barrowclough, 2014; Mclaughlin, & Nolen-Hoeksema, 2011; Muris, Roelofs, Rassin, Franken, Mayer, 2005; Wolkenstein, Zwick, Hautzinger, Joormann, 2014). 특히 반추가 부정적 기분을 증가시키고 문제해결을 방해하며 주의집중을 저하시킨다(Lyubomirsky, Tucker, Caldwell, & Berg, 1999)는 사실이 제안되면서 반추의 부정적 영향이 입증되고 있다.

Watkins와 Moulds(2005)의 연구에 따르면 반추는 더욱 부적응적인 부정적 사고를 유발시키고, 문제해결을 효율적으로 이끌지 못한다(De Lissnyder, et al., 2012). 아울러 반추하는 사

람들은 사회적 지지를 덜 경험하고 더 많은 불화를 경험하며 타인에 의해 덜 호의적으로 간주된다(Nolen-Hoeksema & Davis, 1999). 또한 반추는 청소년기 부정적 사고와 서투른 문제해결과도 연합되었고, 도구적 행동 억제 및 감소된 사회적 지지와도 관련을 보였다(Nolen-Hoeksema, et al., 2008). Johnson 등(2015)의 연구에서는 고통을 받을 때 반추하는 사람들은 반추를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울 장애를 더 발달시키는 경향을 보였으며, 아동기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 더욱 더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맥락에서 반추에 대한 연구들은 아동과 청소년기(Rood, Roelofs, Bogels, Nolen-Hoeksema, & Schouten, 2009)를 포함하여 폭식과 약물사용(Nolen-Hoeksema, Stice, Wade, & Bohon, 2007) 그리고 비자살적인 자기가해(Hilt, Cha, & Nolen-Hoeksema, 2008)등의 주제로 확장되어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부적응적인 반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반추에 근거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현실적으로는 반추를 발달시키는 요인에 대해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Hilt, et al., 2012; Nolen-Hoeksema & Watkins, 2011).

반추가 우울 및 사회불안을 포함하여 아동(Rhoades, 2008) 및 청소년기 부적응적인 결과와 연합되며, 일단 반추가 작동된 이후에는 멈추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이 제안되면서(Nolen-Hoeksema, et al. 2007), 반추 발달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발달적 과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통이나 부정적 사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되씹어 생각하는 반추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반추를 발달

시키는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반추는 아동들에게 삽화 및 사진이나 그림 등을 보여주고 그런 사건이 자신에게도 일어난 적이 있는 가를 보고하게 함으로써 측정될 수 있다(Baiocco, et al., 2017).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반추는 청소년기가 되어서야 적응 문제가 관련을 보인다고 제안되고 있다(Rood, et al., 2009). Burwell 와 Shirk(2007)는 청소년기에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 소극적이고 침울하게 질문하는 것으로 특징되는 반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기로의 전이시기에 있는 초등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반추와 관련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만 10세가 되는 초등 4학년 시기는 인지적 입장에서는 자기보고가 가능한 시기이며, 청소년기가 시작되는 시점으로서 발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반추와 관련될 수 있는 요인들을 탐색하여 반추 발달에 대한 위험 요인들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반추와 관련될 수 있는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요인 중 하나는 부모 갈등이다. Davies와 Forman (2002)에 따르면 부모갈등에 계속 노출되면서 아동들은 반추를 발달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아동기 정신 병리학적 위험 요인들에 대한 이론에서도 반추와 같은 역기능적 인지 양식이 아동기 때 부부갈등에 노출된 경험과 이후 삶의 정신 병리학적 위험 간 연합에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Buehler, Lange, & Franck, 2007; Rhoades, 2008).

최근에 진행된 Johnson등(2015)의 연구에서도 부부갈등을 위협적으로 지각하고 그런 갈등에 어떤 대처 능력이 없다고 지각하는 것과

반추가 정적인 관련성을 보였다. 게다가 이러한 부부갈등에 대한 지각은 반추를 통해 이후 여러 심리 병리적 형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음을 제시하였다. Rhoades(2008)는 부부갈등에 대한 평가와 반추가 아동의 적응과 관련을 보였고, 이후 부적응적인 문제를 예측했다고 제시하였다(Cummings, George, McCoy, & Davies, 2012; Goeke-Morey, Papp, & Cummings, 2013). 따라서 반추가 부모갈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반추와 관련을 보이는 또 다른 요인은 부모의 양육방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Spasojevic 와 Alloy(2002)는 아동기에 경험한 양육방식에 대한 지각과 반추 간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아동기 때 높은 수준의 통제적인 양육을 경험했다고 보고한 개인들이 반추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다. Hilt 등(2012)의 연구에서도 아동 초기 때 높은 통제 수준의 양육을 경험한 아동들이 청소년기 때 더 많은 반추를 하였음을 보여주었다.

Nolen-Hoeksema(1998)에 따르면 아동들이 자신이 처한 환경을 적절히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리고 능동적인 대처 전략을 학습하지 못할 때 반추를 더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즉 아동들이 긍정적인 문제해결 방식을 학습하지 못했거나, 주의산만과 같은 부정적 기분을 다룰 수 있는 적응적 전략을 학습받지 못했기 때문에 반추적이고 수동적인 대처 양식을 발달시킬 수 있는 것이다(Kopp, 1982; Shure & Spivack, 1978). Higgins와 Silberman(1998) 연구에서는 과보호적이거나 거부적인 양육이 아동들에게 학습하고 경험할 그리고 대처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거

의 주지 않기 때문에 반추를 발달시키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반추는 부모갈등 뿐 아니라 부정적인 양육행동과 관련을 보일 수 있다.

다음으로 반추와 관련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인 사회불안이다. 사회불안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불안으로 간략히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불안은 주로 청소년기나 성인 초기에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아동기부터 발달한다(Degnan, & Fox, 2007). Clark와 Wells(1995)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불안 수준이 높은 개인들은 공포스런 사회적 상황 이전과 상황이 끝난 이후에 더욱 반추적 사고를 한다고 가정하였다. 연구들에 따르면 사회적 상황에서 더 높은 불안 수준을 경험하는 개인들은 불안을 야기하는 사회적 사건 뒤에 더 큰 반추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Lundh & Sperling, 2002; Rachman, Gruter-Andrew, & Shafran, 2000), 사건 전에 발생하는 예기적 사전 반추에서도 증가된 수준을 보였다(Vassilopoulos, 2008).

Brozovich 등(2015)에 따르면, 반추가 불안(Aldao, Nolen-Hoeksema, & Schweizeret, 2010)과 특별히 사회불안(D'Avanzato, Joormann, Siemer, & Gotlib, 2013)과 더 강하게 연합되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청소년기에서 반추가 우울보다는 불안과 더 강하게 연합되었다(McLaughlin, & Nolen-Hoeksema, 2011). 이외에도 여러 연구들에서 불안을 야기시키는 상황과 사후 반추 간 강력한 정적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Fehm, Schneider, & Hoyer, 2007; Kocovski & Rector, 2007). Abbott와 Rapee (2004)에 의하면

사회공포증을 가진 개인들은 통제집단보다 더욱 부정적 반추에 관여하며, 사회불안정도에 대한 자기 평가가 반추에 대한 최고의 예측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높은 사회불안을 보이는 개인들은 불안이나 고통을 야기시킬 수 있는 사회적 사건 전과 후에 더 많이 반추적 사고를 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사회불안이 반추를 예언하는 심리적 특성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반추에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요인으로 부모갈등, 부정적인 양육방식, 그리고 사회불안을 제안해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은 서로 간 관련을 보이면서 반추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반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 간 관련성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첫째로, 부모갈등은 양육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Belsky(1981)는 부부 간 갈등으로 무기력을 느끼는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부정적으로 대하거나 지나치게 간섭을 하면서 자녀행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에 의하면 부모갈등은 통제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하여 자녀 부적응에 영향을 주었다. 또 다른 연구(Davies, & Cummings, 1994)에서는 부모갈등이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자녀적응과 관련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부모갈등은 양육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양육을 통해 반추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둘째로, 부모갈등은 아동의 사회불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김은향(2005)에 의하면 부모갈등은 자녀의 대인관계 불안에 정적으로 상관을 보였고, 노지형과 송현주(2007)의 연구

에서는 부부갈등이 아동의 사회불안에 정적 영향을 주었다. 또한 호유나(2005)연구에서도 부정적으로 부부 간 갈등을 평가하는 청소년들이 더 높은 사회불안을 나타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부모갈등으로 인해 우울과 불안 등이 보고되었다(박정아, 2003; Grych & Fincham, 1990). 특히 최근 들어 사회불안을 발생시키고 유지시키는 요인으로 부모갈등(Cummings, Goeke-Morey, & Papp, 2003)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부모갈등은 사회불안에 영향을 주면서 사회불안을 통해 반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사회불안은 부적절한 양육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Arrindell 등(1989)에 의하면 부모 중, 특히 아버지가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가졌을 때 자녀들은 사회불안을 느끼면서 대인관계를 잘 하지 못했다. Stark 등(1990)은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부모의 양육방식을 거부나 통제로 높게 지각할수록 아동들은 불안을 높게 나타냈다. 이와 같이 거부적이고 통제적 양육은 자녀의 사회불안에 영향을 주면서 직·간접적으로 반추와 관련을 보일 수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초등4학년 아동의 반추와 관련된 요인들로 부모갈등지각, 거부·제재적 양육지

각, 그리고 사회불안을 살펴보고 이런 요인들 간 관련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연구들을 토대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여 부모갈등 지각이 양육방식, 아동의 사회불안 및 반추에 영향을 주는 직·간접적인 경로를 분석함으로써 아동기 반추와 관련된 변인들 간 직·간접적인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2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로, 반추, 부모갈등지각, 거부·제재적 양육지각, 그리고 사회불안은 어떤 관련성을 보이는가? 두 번째로, 반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II .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경기도내 수도권 신도시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 아동(만 10세) 288명들이다. 부모갈등지각, 양육행동지각, 반추, 사회불안 등의 설문지가 아동들의 보고로 측정되었다. 설문지에 참여한 약 288명의 아동 중, 지적 장애 진단을 받은 일부의 특수아동과 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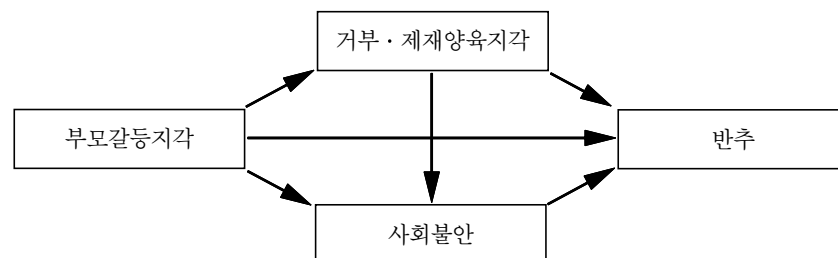


그림 1. 반추의 예언 변인들에 대한 연구모형

실하게 응답한 아동 등 21명을 제외한 총 267명에 대한 설문지가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징으로는 총 분석 대상인 267명 중, 남아가 118(44.2%)이고 여아가 149명(55.8%)이다. 형제 순위는 첫째(44%), 둘째(11%), 막내(28%), 그리고 외동이(16.7%) 등이다. 부모의 평균 연령으로, 아버지는 42세($SD=3.65$, 범위: 34-57세)이며 어머니가 41세($SD=3.22$, 범위: 32-53세)이다. 가정의 경제사정으로는 매우 잘 산다(27.9%), 잘사는 편이다(41.5%), 보통수준(27.5%), 어렵다(3%) 등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부모갈등지각

부모갈등에 대한 지각은 권영옥과 이정덕(1997)이 타당화 시킨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9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 척도 중, 갈등내용, 지각된 위협, 대처효율성, 자기비난의 4가지 하위영역에 속한 21문항을 사용하였고, 각 문항들은 5점 척도로 평가된다. 갈등 내용과 자기비난의 하위 영역은 부모갈등이 아동자신 때문이라고 지각한 내용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영역을 합하여 자기비난의 하위 영역으로 하였다. 선행연구(1997)에서 신뢰도 계수는 갈등내용이 .75, 지각된 위협이 .78, 대처효율성이 .69, 자기비난이 .66이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갈등내용이 .78, 지각된 위협이 .85, 대처효율성이 .76, 자기비난이 .76이며, 전체신뢰도는 .86이다.

거부·제재적 양육지각

양육지각은 박영애(1995)가 제작한 양육행동 척도를 김문정(2003)이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0문항의 3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거부·제재양육을 측정하는 10문항만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들은 5점 척도로 평가된다. 거부·제재 양육행동지각에 대한 선행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88이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85이다.

사회불안

이 척도는 원래 La Greca(1998)의 청소년용 사회적 관계불안 척도 18문항과 문혜신과 오경자(2002)의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불안 척도 중 일부인 수행불안 척도 9문항을 합한 27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각의 문항들은 5점 척도로 평가된다. 각 하위 영역으로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불안, 새로운 상황에 대한 불안, 일반적 상황에 대한 불안, 수행에 대한 불안 등의 4개 영역으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불안과 새로운 상황에 대한 불안 그리고 일반적 상황에 대한 불안을 합하여서 사회적 관계 불안 영역으로 하였다. 사회적 관계불안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을 말한다. 선행연구에서 신뢰도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88, 새로운 상황에 대한 불안은 .74, 일반적 상황에 대한 불안은 .69, 수행 불안은 .87이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불안이 .91, 새로운 상황에 대한 불안이 .78, 일반적 상황에 대한 불안이 .82, 수행불안이 .92이며, 전체 신뢰도는 .94이다.

반추

반추는 신다원(2015)이 사용한 반추적 반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원래 김진영(2000)이 제작한 우울한 기분에 대한 반응양식을 측정하는 질문지(RDQ)로써,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총 30문항으로, 5점 척도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반추를 측정하는 12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선행 연구(2015)에서 반추의 Cronbach's α 는 .90이며, 본 연구에서는 .93이다.

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연구 절차는 수도권 내에 있는 두 곳의 초등학교들을 방문하여 연구주제와 연구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린 후, 학교장과 아동의 담임교사들의 하락 하에 진행되었다. 우선적으로 4학년 아동들의 가정에 연구관련 설명서 및 연구 참여 동의서를 보낸 후, 참여 의사를 밝힌 아동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진행하였다. 아동의 각 담임 선생님들에게 설문 진행에 대한 주의점 등을 자세하게 설명한 다음, 담임 선생님이 각 학급에서 아동들에게 설문지를 실시하였고, 이후 연구자가 학교를 재방문하여 직접 회수하였다. 부모갈등지각, 양육행동지각, 반추, 사회불안이 아동들의 보고로 측정되었다. 설문지에 참여한 아동은 총 288명이다. 이중, 지적 장애를 가진 몇몇 특수아동과 성실하게 답하지 않은 아동들의 설문지 21개를 제외한 총 267명에 대한 설문지가 분석되었다.

자료 분석 과정으로 각 변인들의 빈도, 신뢰도 계수, 평균, 편차 및 상관관계 분석을 위

해 SPSS 24.0을 그리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AMOS 24.0을 사용하였다. 반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설정된 연구모형의 각 변인과 변인 내의 관찰변인들이 제대로 측정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전검증 단계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간편하게 모형을 평가할 수 있는 적합도 지수로서 χ^2 값, GFI, TLI, CFI, RSMR을 선정하여 평가하였다(우종필, 2014). 적합도 지수들의 평가기준은 GFI, TLI 그리고 CFI는 .90 이상일 때 좋은 것으로 평가되며, SRMR 값이 .05 이하면 매우 양호한 것으로 .08은 양호한 것으로, .10이하 이면 대체로 양호한 모델로 평가된다(김수정, 곽금주, 2012 에서 재인용).

III. 연구결과

1. 부모갈등 지각, 거부제재 양육지각, 사회불안, 반추 간의 관계

먼저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다음,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모든 변인들의 값은 왜도와 첨도에서 적정한 값을 나타내어서 정규분포의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부모갈등 지각은 $p < .001$ 수준에서 거부제재 양육지각과 정적 상관($r = .48$)을 그리고 사회불안($r = .38$) 및 반추($r = .43$)와도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부모갈등을 높게 지각

표 1. 변수들 하위범주간의 상관, 평균, 표준편차($N=267$)

변수	부모갈등지각	거부제재양육	사회불안	반추
부모갈등지각	1			
거부제재양육	.479***	1		
사회불안	.375***	.210***	1	
반추	.429***	.400***	.490***	1
평균	2.02	1.63	1.99	2.03
표준편차	.38	.62	.76	.92
최소값	1.37	1.00	1.00	1.00
최대값	3.07	5.00	4.81	5.00
왜도	.55	1.57	.87	.97
첨도	-.38	3.64	.29	.45

** $p < .01$, *** $p < .001$

할수록 양육을 부정적으로 지각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모갈등을 높게 지각할수록 사회불안과 반추는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거부·제재적 양육지각은 사회불안($r = .21$) 및 반추($r = .40$)와 $p < .001$ 수준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을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아동의 사회불안과 반추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사회불안은 반추와 강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r = .49$, $p < .001$). 즉, 사회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들의 반추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2. 측정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에 앞서 잠재변인의 측정이 올바르게 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모형에 대한 모델적합도가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잠재변인에서 관찰변인으로의 요인부하량도 .50수준 이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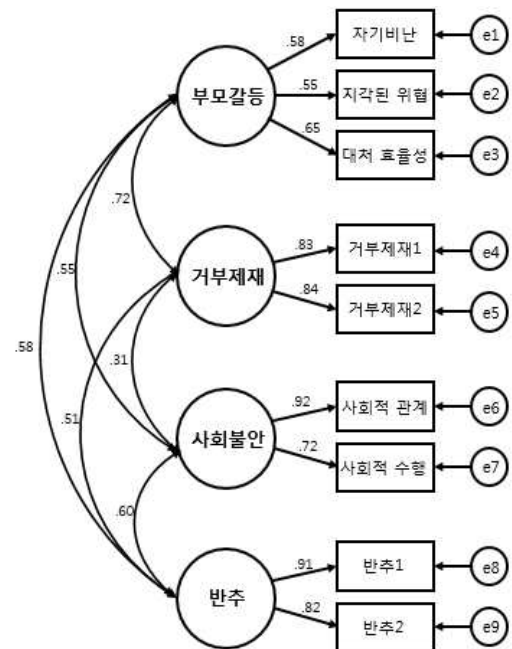


그림 2.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p	GFI	SRMR	CFI	TLI
연구모형	76.44	21	.000	.94	.05	.94	.90

보이므로 관찰변인을 통한 잠재변인의 측정이 올바르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은 TLI가 .96, CFI가 .97, GFI는 .90, RMSEA는 .05로 양호한 적합도 수준을 보였다(표 2 참조).

3. 반추의 예측 요인들에 대한 구조모형 검증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적절한 기준을 충족하여 모형의 모델추정가능성이 이론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구조방정식을 통해 연구 모형을 검증하였다.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양호한 모형으로

확인되었다. 구조모형의 검증 결과는 그림 3에 제시되었으며, 요인들 간 경로에 대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반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거부·제재적 양육이 직접적으로 반추와 정인 관련성을 보였으며($\beta = .26, p < .05$), 아동의 사회불안도 $p < .001$ 수준에서 반추와 유의미하게 정적으로 관련되었다. 이는 부모의 양육을 거부적이고 통제적으로 지각하는 아동일수록 그리고 높은 수준의 사회불안을 보일수록 반추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갈등 지각은 아동의 반추에는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거부·제재 양육과는 매우 유의미한 정적인 관련성

표 3.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p	GFI	SRMR	CFI	TLI
연구모형	76.43	21	.000	.94	.05	.94	.90

표 4.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C.R.	p
갈등지각	→ 거부·제재	1.22	.72***	.18	6.80	.000
갈등지각	→ 반추	.39	.16	.36	1.06	.289
갈등지각	→ 사회불안	1.37	.67***	.37	3.67	.000
거부·제재	→ 반추	.37	.26*	.16	2.28	.023
거부·제재	→ 사회불안	-.20	-.17	.18	-1.16	.245
사회불안	→ 반추	.51	.43***	.10	4.99	.000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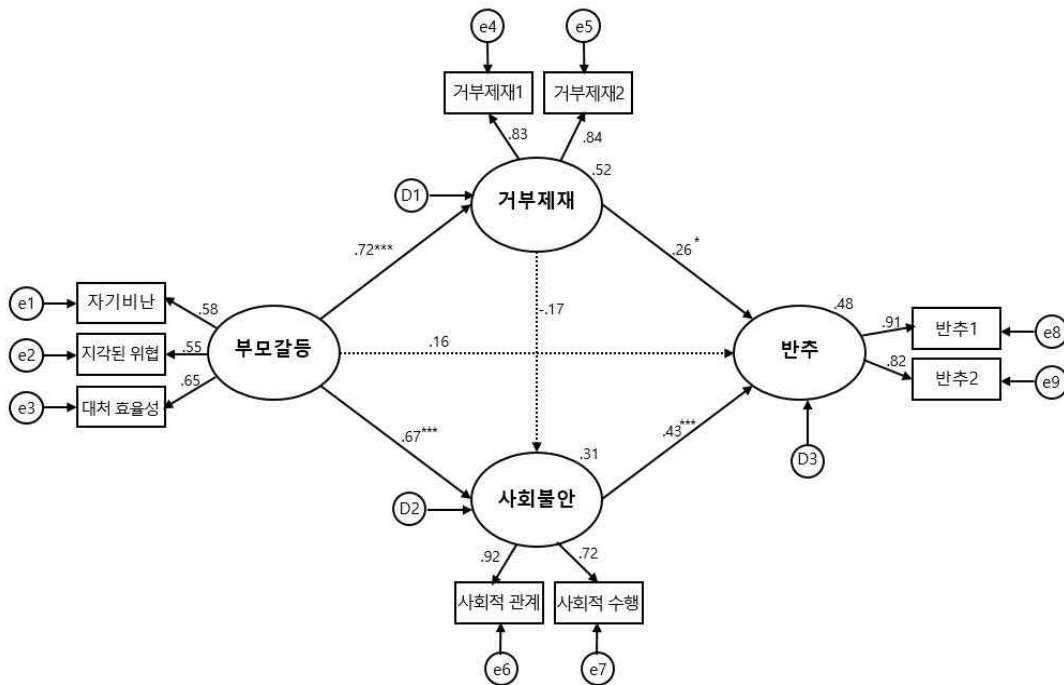


그림 3. 반추의 예언 변인들에 대한 구조모형 검증 결과

을 보였다($\beta = .72, p < .001$). 이런 결과를 통해 부모갈등을 강하게 지각할수록 아동들은 부모의 양육을 거부적이고 통제적으로 지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4 참조). 다만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갈등 지각은 거부·제재 양육을 통해 간접적으로 아동의 반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갈등 지각은 사회불안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67, p < .001$). 즉 부모갈등 지각을 높게 보이는 아동들이 높은 수준의 사회불안을 보였다. 따라서 부모갈등 지각은 사회불안을 통해 반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과 청소년기 부정적 정서 및 부적응적인 사고를 유발시키고, 효율적인 문제해결을 방해할 수 있는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반추에 대한 예측 변인들을 부모갈등 지각, 거부·제재적 양육지각, 사회불안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특히 반추가 부적응적인 문제와 관련을 보일 수 있는 시기인 아동 후기와 청소년기로의 전이시기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반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 간 직·간접적인 경로를 분석하여 반추에 대한 직·간접적인 예측 변인들과 변인 간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 연구문제로, 부모갈등지각, 거부·

제재적 양육지각, 사회불안, 그리고 반추 간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변인 간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갈등지각은 반추와 정적으로 매우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지나치게 한 가지에 몰두하거나 걱정을 반복적으로 되씹는 반추적 사고가 부모갈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생기는 부산물일 수 있다는 Davies와 Forman(2002)의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반추와 같은 역기능적 인지적 사고가 아동기 때 부부갈등에 노출된 경험과 이후 삶의 정신 병리학적 위험 간 연합에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들(Buehler, et al., 2007; Davies & Forman, 2002; Rhoades, 2008)과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부모갈등지각은 거부·제재적 양육과도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부모 갈등지각이 부정적인 거부적 양육지각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인 김수정 등의 연구(2018) 결과와 일치된다. 이처럼 부부 간 갈등으로 무기력을 느끼는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부정적으로 대하거나 지나치게 간섭을 하게 되면서(Belsky, 1981), 이러한 부정적 양육행동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부모 갈등지각은 아동의 사회불안과도 높은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부모갈등이 자녀의 대인 간 관계불안과 정적 상관을 보인 김은향(2005)의 연구와 부모갈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청소년들이 더 높은 수준의 사회불안을 보인 연구(호유나, 2005)와 일치되는 결과들이다.

다음으로 거부·제재적 양육지각은 사회불안과 정적 상관을 높게 보였다. Arrindell 등(1989)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거부적인 양육

태도가 자녀의 사회불안 및 대인관계와 정적 관련을 보였다. 또한 Stark 등(1990)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방식을 거부나 통제로 높게 지각할수록 아동들은 불안을 높게 나타냈다. 이와 같이 거부적이고 통제적 양육이 자녀의 사회불안과 정적 관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제재적 양육은 아동의 반추적 사고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Spasojevic와 Alloy(2002) 연구에서 보면 아동기 때 높은 수준의 통제적인 양육을 받았다고 지각한 사람들이 반추적 사고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Hilt 등(2012)의 연구에서도 아동 초기 때 높은 통제 수준의 양육을 경험한 아동들이 청소년기 때 더 많이 반추를 하였다는 연구 결과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아동의 사회불안은 아동의 반추와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반추가 불안(Aldao et al., 2010)과 특별히 사회불안(D'Avanzato, et al., 2013)과 더 강하게 관련되었던 연구와 같은 맥락이며, 청소년기에서 반추가 우울보다는 불안과 더 강하게 관련을 보인 연구(McLaughlin, & Nolen-Hoehsema, 2011)와 일치된다. 또한 불안을 야기시키는 상황과 반추 간 강한 정적 상관을 발견한 연구(Fehm, et al., 2007; Kocovski & Rector, 2007)들과 일치되는 맥락이다.

두 번째로, 반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살펴본 결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거부·제재 양육지각과 아동의 사회불안이며,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요인은 부모갈등지각이다. 반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요인 중 하나인, 거

부·제재적 양육은 아동의 반추에 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이런 결과는 아동들이 자신이 처한 환경을 적절히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반추를 더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Nolen-Hoeksema(1998) 연구와 일치된다. 가령, 부모갈등에 대해 해결능력이 없다는 지각하거나 과통제적이고 거부적인 양육에서 오는 좌절에 직면하여 무기력이 되는 아동들은 자신의 부적 정서가 지속되는 동안 반추적으로 자기 초점적 사고를 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Dweck, 1998). 또한 과보호적이거나 거부적인 양육이 아동들에게 학습하고 경험할 그리고 대처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거의 주지 않기 때문에 반추를 발달시키게 된다는 Higgins 와 Silberman(1998) 연구와도 부분적으로 일치되는 결과이다. 이처럼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부정적 양육이 자녀의 반추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 요인으로 제안된다.

다음으로 사회불안이 반추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여러 연구들에서 보면 높은 수준의 불안을 보이는 사람들은 불안을 야기하는 사회적 사건 전과 이후에 더 많이 반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undh & Sperling, 2002; Rachman, et al., 2000; Vassilopoulos, 2008). Abbott와 Rapee(2004)에 의하면 높은 수준의 사회불안을 가진 개인들은 통제집단보다 더욱 부정적 반추를 하였으며, 특히 자신의 사회불안 정도에 대한 평가가 반추에 대한 최고의 예측인이 되었다. 이런 결과들은 사회불안이 반추에 정적으로 영향을 준 현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들이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불안을 보이는 개인들은 불안이나 고통을 야기시킬 수 있는

사회적 사건에 직면하여 또는 사회적 사건을 경험한 뒤에 더 많은 반추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사회불안이 아동의 반추를 예언하는 심리적 특성으로 제안될 수 있다.

반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인 부부갈등지각은 거부·제재적 양육을 통해 반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부모갈등지각은 거부·제재적 양육에 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김수정 등(2018)의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또한 부모갈등이 통제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하여 자녀 부적응에 영향을 주었다는 Belsky(1981)의 연구와 부모갈등이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자녀적응과 관련될 수 있다는 Davies와 Cummings(1994)의 연구와도 부분적으로 일치되는 맥락이다. 이처럼 부부 간 갈등으로 스트레스나 무력감을 느끼는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부정적으로 대하거나 지나치게 간섭을 하면서(Belsky, 1981), 거부적이거나 통제적인 부정적 양육을 할 수 있음으로써 반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부부갈등지각은 아동의 사회불안에 영향을 줌으로써 반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부부 갈등지각이 아동의 사회불안에 정적인 영향을 준 결과는 노지형과 송현주(2007)의 연구와 일치되며, 부모갈등으로 인해 자녀들의 우울과 불안 등을 보고한 연구들(박정아, 2003; Grych & Fincham, 1990)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사회불안을 발생시키고 유지시키는 요인으로 부모갈등을 제안하는 Cummings 등(2003) 연구 결과와 일치된다. 이와 같이 부모갈등이 반추에 직접적인 영향

은 주지 않으나, 사회불안에 영향을 주면서 반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추에 영향을 주는 직·간접적인 요인들을 요약해 보면, 거부·제재적 양육 지각과 아동의 사회불안은 아동의 반추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부모갈등 지각은 거부제재 양육과 사회불안에 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간접적으로 반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들 간 갈등으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한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거부적이거나 또는 지나치게 간섭하는 과 통제적 양육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 통제적이고 거부적인 양육에서 아동들은 좌절을 겪으면서 무기력하게 되고 이러한 부정적 정서들이 지속되는 동안, 내적으로 자기 초점적이 되면서 반추를 발달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들어 부정적 정서 및 적응 문제와 관련하여 새롭게 대두되는 요인 중 하나인 반추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반추는 우울, 불안 및 여러 다양한 정신 병리적 문제와 관련을 보이며 일단 반추가 형성되면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이 제안되면서 미연에 발달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반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요인들 간 직·간접적인 관련성을 분석하여 반추에 대한 위험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반추를 측정하여 최근 아동 적응에 긴밀한 관련을 보이는 요인들 중, 하나인 부모갈등(이수빈, 김연하, 2018)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는 점과 부모갈등에서 야기되

는 부모의 양육방식과 아동의 사회불안을 중심으로 반추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큰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연구에서 나온 결과들은 아동기 반추 발달에 대한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아동을 둘러싼 더욱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들과 반추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종단적 설계를 통해 좀 더 심층적으로 반추 관련 요인들 간 연계성을 연령별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연령이 증가하면서 긍정적인 반추적 사고인 반성적 사고 발달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추후 연구 문제들을 탐색함으로써 반추와 여러 다양한 심리적 특성 간 연계성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들이 제안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긍정적 발달을 위한 토대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교육 및 상담현장에서도 아동과 청소년들을 이해하는 또 다른 심리차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아동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고 적절한 개입을 위한 아동 정신건강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적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아동 복지 정책에도 유익한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영옥, 이정덕 (1997).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CPIC)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8(1), 65-80.
- 김문정 (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정, 곽금주 (2012).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초등학교 1, 2 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변인 간 관련성에서 차이: 양육효능감, 자아개념 그리고 친사회성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9(3), 85-105.
- 김수정, 정윤경, 박현식 (2018). 부모갈등 지각이 초등 4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주는 영향: 거부 제재 양육지각, 반추, 사회불안을 매개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1(4), 21-41.
- 김은향 (2005).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인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영 (2000). 우울한 기분에 대한 두 가지 내부초점적 반응양식, 반추적 반응양식 대 반성적 반응양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지형, 송현주 (2007).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및 부모양육태도와 사회불안과의 관계. *Journal of Psychotherapy*, 7(2), 75-98.
- 문혜신, 오경자 (2002).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임상학회지: 임상*, 21, 429-443.
- 박영애 (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정아 (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갈등과 아동의 불안 및 유능감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다원 (2015). 남녀 청소년의 수치심경향성 및 죄책감경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종필 (2014). 구조방정식모델의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
- 이수빈, 김연하 (2018). 부부갈등과 만 6세 아동의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온정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인간발달연구*, 25(4), 135-153.
- 호유나 (2005). 청소년의 가족 사회적 환경, 부부갈등, 행동억제기질과 사회불안과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bbott, M. J., & Rapee, R. M. (2004). Post-event rumination and negative self-appraisal in social phobia before and after treatmen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3, 136 - 144.
- Aldao, A., Nolen-Hoeksema, S., & Schweizer, S. (2010). Emotion-regulation strategies across psychopathology: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30, 217-237.
- Arrindell, W. A., Kwee, M. G. T., Methorst, G., J., Van Der Edne, J., Pole, E., & Moritz, B. J. M. (1989). Perceived parental rearing style of agoraphobic and socially phobic inpatient.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55, 526-535.
- Baiocco, R., Manzi, D., Lonigro, A., Petrocchi, N., Laghi, F., Ioverno, S., & Ottaviani, C. (2017). A kid-friendly tool to assess rumination in children and early adolescents: relationships with mother psychopathology and family functioning.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6, 2703-2715.
- Belsky, J. (1981). Early human experience: A family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7, 3-23.

- Brozovich, F. A., Goldin, P., Lee, I., Jazaieri, H., Heimberg, R. G., & Gross, J. J. (2015). The effect of rumination and reappraisal on social anxiety symptoms during cognitive-behavioral therapy for social anxiety disorde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71*(3), 208-218.
- Buehler, C., Lange, G., & Franck, K. L. (2007). Adolescents' cognitive and emotional responses to marital hostility. *Child Development, 78*, 775-789.
- Burwell, R. A., & Shirk, S. R. (2007). Subtypes of rumination in adolescence: associations between brooding, reflection, depressive symptoms, and coping.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6*, 56-65.
- Clark, D., & Wells, A. (1995).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New York: Guilford Press.
- Cummings, E. M., George, M. R. W., McCoy, K. P., & Davies, P. T. (2012). Interparental conflict in kindergarten and adolescent adjustment: Prospective investigation of emotional security as an explanatory mechanism. *Child Development, 83*, 1703-1715.
- Cummings, E. M., Goeke - Morey, M. C., & Papp, L. M. (2003). Children's responses to everyday marital conflict tactics in the home. *Child Development, 74*, 1918-1929.
- D'Avanzato, C., Joormann, J., Siemer, M., & Gotlib, I. H. (2013). Emotion regulation in depression and anxiety: Examining diagnostic specificity and stability of strategy us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7*, 968-980.
- Degnan, K. A., & Fox, N. A. (2007). Behavioral inhibition and anxiety disorders: Multiple level of a resilience process. *Developmental and Psychology, 64*, 215-230.
- Davies, P. T., & Cummings, E. M.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 Davies, P. T., Forman, E. M. (2002). Children's patterns of preserving emotional security in the interparental subsystem. *Child Development, 73*, 1880-1903.
- De Lissnyder, E., Koster, E. H. W., Everaert, J., Schacht, R., Van den Abeele, D., & De Raedt, R. (2012). Internal cognitive control in clinical depression: general but no emotion-specific impairments. *Psychiatry Research, 199*, 124-130.
- Dweck, C. S. (1998). The development of early self-conceptions: Their relevance for motivational processes. In J. Heckhausen & C. S. Dweck (Eds.), *Motivation and self-regulation across the life-span* (pp. 257-280).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ehm, L., Schneider, G., & Hoyer, J. (2007). Is post-event processing specific for social anxiety?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38*, 11-22.
- Goeke-Morey, M. C., Papp, L. M., & Cummings, E. M. (2013). Changes in marital conflict and youths' responses across childhood and adolescence: A test of sensitizat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5*, 241-251.

- Grych, J. H., & Fincham, F. D. (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 267-290.
- Hartley, S., Haddock, G., Vasconcelose Sa, D., Emsley, R., & Barrowclough, C. (2014). An experience sampling study of worry and rumination in psychosis. *Psychological Medicine*, 44, 1605-1614.
- Higgins, E. T., & Silberman, I. (1998). Development of regulatory focus: Promotion and prevention as ways of living. In J. Heckhausen & C. S. Dweck (Eds.), *Motivation and self-regulation across the life-span* (pp. 78-113).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ilt, L. M., Armstrong, J. M., & Essex, M. J. (2012). Early family context and development of adolescent ruminative style: Moderation by temperament. *Cognition and Emotion*, 26, 916-926.
- Hilt, L. M., Cha, C. B., & Nolen-Hoeksema, S. (2008). Nonsuicidal self-injury in young adolescent girls: Moderators of the distress-function relationship.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6, 63-71.
- Johnson, D. P., Carr, F. A., & Whisman, M. A. (2015). Inter-parental conflict and rumin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gnitive Therapy*, 8(1), 1-10.
- Kocovski, N. L., & Rector, N. A. (2007). Predictors of post-event rumination related to social anxiety. *Cognitive Behaviour Therapy*, 43, 1-11.
- Kopp, C. B. (1982). Antecedents of self-regula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199-214.
- La Greca, A. M. (1998). *Manual for the social anxiety scale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Miami, FL: Author.
- Lundh, L.-G., & Sperling, M. (2002). Social anxiety and the post-event processing of socially distressing events. *Cognitive Behaviour Therapy*, 31, 129-134.
- Lyubomirsky, S., Tucker, K. L., Caldwell, N. D., & Berg, K. (1999). Why ruminators are poor problem solvers: clues from the phenomenology of dysphoric ru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 1041-1060.
- McLaughlin, K. A., & Nolen-Hoeksema, S. (2011). Rumination as a transdiagnostic factor in depression and anxiety.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49, 186-193.
- Mor, N., & Winquist, J. (2002). Self-focused attention and negative affect: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28, 638-662.
- Muris, P., Roelofs, J., Rassin, E., Franken, I., & Mayer, B. (2005). Mediating effects of rumination and worry on the links between neuroticism, anxiety and dep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9, 1105-1111.
- Nolen-Hoeksema, S. (1998). Ruminative coping with depression. In J. Heckhausen & C. S. Dweck (Eds.), *Motivation and self-regulation across the life spa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olen-Hoeksema, S., & Davis, C. G. (1999). "Thanks for sharing that": ruminators and their social support network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 801-814.
- Nolen-Hoeksema, S., & Watkins, E. R. (2011). A heuristic for developing transdiagnostic models of psychopathology: Explaining multifinality and divergent trajectories.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6, 589-609.
- Nolen-Hoeksema, S., Stice, E., Wade, E., & Bohon, C. (2007). Reciprocal relations between rumination and bulimic, substance abuse and depressive symptoms in female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6, 198-207.
- Nolen-Hoeksema, S., Wisco, B., & Lyubomirsky, S. (2008). Rethinking rumination.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3, 400-424.
- Rachman, S., Gruter-Andrew, J., & Shafran, R. (2000). Post-event processing in social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8, 611-617.
- Rhoades, K. A. (2008). Children's responses to interparental conflict: A meta-analysis of their associations with child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79, 1942-1956.
- Rood, L., Roelofs, J., Bogels, S. M., Nolen-Hoeksema, S., & Schouten, E. (2009). The influence of emotion-focused rumination and distraction on depressive symptoms in non-clinical youth: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9, 607-616.
- Shure, M. B., & Spivack, G. (1978). *Problem-solving techniques in child rearing*. San Francisco: Jossey-Bass.
- Spasojevic, J., & Alloy, L. B. (2002). Who becomes a depressive ruminator?: Developmental antecedents of ruminative response style. *Journal of Cognitive Psychotherapy*, 16, 405-419.
- Stark, K. D., Humphrey, L. L., Crook, K., & Lewis, K. (1990). Perceived family environments of depressed and anxious children: Child's and maternal figure's perspectiv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 527-547.
- Vassilopoulos, S. P. (2008). Social anxiety and ruminative self-focu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860-867.
- Watkins Ed., & Moulds. (2005). Distinct modes of ruminative self-focus: Impact of abstract versus concrete rumination on problem solving in depression. *Emotion*, 5(3), 319-328.
- Wolkenstein, L., Zwick, J. C., Hautzinger, M., & Joormann, J. (2014).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in euthymic bipolar disorder.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 160, 92-97.

1 차원고접수 : 2019. 04. 08.

수정원고접수 : 2019. 05. 24.

최종게재결정 : 2019. 06. 19.

Exploring Rumination in childhood: On Parental Conflict, Parenting Style, and Social Anxiety

Kim Sucheung

Humanities Social Research Institute
Catholic University

Jeong Yoonkyung

Department of psychology
Catholic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variables related to rumination in late childhood and to explore direct and the indirect relationships among these variables. The participants consisted of 267 children who are fourth year in elementary school. Each child completed questionnaires containing items on perceptions of parental conflicts, perceptions of parenting style, social anxiety and rumination. The results of a correlational analysis revealed that perceptions of parental conflicts were highly correlated with parenting style high in rejection and control as well as with social anxiety. In addition, perceptions of parental conflicts were closely related to rumination. A parenting style high in rejection and control was also related to social anxiety and rumination. Social anxiet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rumination. The result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devised for this study showed that children's perceptions of parental conflicts significantly influenced a parenting style high in rejection and control as well as social anxiety, whereas this variable did not influence rumination. Both a parenting style high in rejection and control and social anxiety had significant effects on rumination. The results here suggest that perceptions of parental conflicts influence rumination in children and that this relationship is mediated by both social anxiety and parenting style.

Keywords: perceptions of parental conflicts, parenting style, social anxiety, rumination, late childhood